

싱가포르 2017: 포스트-리관유 시대의 도전과 과제*

강윤희** · 최인아***

<국문초록>

2017년은 리관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과 한-싱 관계 부분에 도움을 주신 주싱가포르대사관 임주성 참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yhkang@snu.ac.kr.)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 연구교수(inachoi@sogang.ac.kr).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B00018).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 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주제어: 싱가포르, 리셴룽, 인민행동당(PAP), 실용외교, 할리마 야콥, 다인종/다문화 사회, 다양성

I. 서론

2017년은 리관유(Lee Kuan Yew)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가 직면한 난제들이 부각된 해였다. 리관유의 자택 처리 문제를 두고 불거진 총리 일가의 갈등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잦은 지하철 고장은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무엇보다 무투표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는 싱가포르인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좌절시킴으로써 집권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가중시켰다. 말레이계에게만 입후보 기회가 주어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누가 말레이인가”라는 인종/민족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논란을 촉발시켰다. 나아가 말레이계 여성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대통령의 선출은 싱가포르 인구의 13퍼센트를 구성하는 소수인종인 말레이계이자, 여성이라는 이중 약자를 내세워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세우려는 시도일 뿐, 실질적인 권익의 상승과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후임 총리가 누가 될 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외교적으로는 균형 외교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전현직 외교관들이 리관유 없는 싱가포르 외교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유례없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압박에 놓여 있으며,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증세 과제도 안게 되었다. 한편, 싱가포르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정점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공식적인 공론의 장이 확장되면서, 자유로운 발언권과 정치 참여에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본고에서는 2017년에 싱가포르 사회가 경험했던 중요한 정치·경제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러한 정치 경제적 변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우선 싱가포르 국내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대두된 중요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점검한 후, 포스트 리관유 시대에 드러나는 도전과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볼 것이다.

II. 국내정치 : 집권당에 자충수가 된 대통령 선거

2017년 싱가포르의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9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였다. 소수 인종 할당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선거에서는 말레이계가 대통령 당선 기회를 부여 받았으며, 할리마 야콥 전 국회의장이

단독 입후보해 대통령직에 올랐다. 할리마의 대통령 당선은 싱가포르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 말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소수 인종 그룹에게 대통령 당선 기회를 부여하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5차례의 대통령 임기 동안 특정 인종 그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종 그룹에게만 대통령직에 입후보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대선에서는 유습 빈 이삭(Yusof bin Ishak) 초대 대통령 이래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던 말레이계가 후보를 내게 되었다(별첨 1 참조).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대통령이 특정 인종 그룹에서만 배출된다면 다인종 국가로서의 성격이 퇴색될 것”이라며 해당 법 개정은 성숙한 다인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CNA 2017a), 유망 대선 후보자로 꼽혔던 중국계 탄첵복(Tan Cheng Bock) 전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탄 전 의원은 2011년 대선에서 0.35%의 득표차로 토니 탄(Tony Tan) 전 대통령에게 아깝게 패배한 인물이다. 탄 전 의원은 새 헌법이 규정한 5차례의 임기 계산을 첫 직선 대통령이 아닌 간선제로 당선된 마지막 대통령 위킴위(Wee Kim Wee) 시절부터 시작한다는 정부의 결정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Siong 2017).¹⁾

1)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위킴위 대통령(제4대) 재임 시절인 1991년 이루어졌으며, 직선제로 당선된 첫 대통령은 옹텡청(Ong Teng Cheong)이다. 소수 인종 할당에 대한 5차례 임기 계산을 옹텡청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 말레이계가 단독 입후보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별첨 1 참조). 정부는 임기 계산을 개헌이 이루어진 시점, 즉 위킴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중국계 후보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집권당의 책략이라는 의혹을 자아냈다. 야당인 노동자당(Worker’s Party)도 임기 계산 기준점이 첫 직선제 당선인인 옹텡청 대통령 시절이 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며 집권당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하였다(Z.L. Chong 2017).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었다. 새 헌법은 공직 또는 민간 분야에서 대통령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을 3년 보유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하되, 민간 분야에서의 경력 기준을 자기자본금이 최소 1억 싱가포르 달러(SGD)인 CEO에서 5억 SGD인 CEO로 강화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말레이계 사업가가 충족하기에는 다소 높은 기준으로서 이번 대선에 입후보할 인력풀을 대폭 축소시켰다. 실제로 말레이계 사업가인 파리드 칸(Farid Khan) 해운회사 회장과 살레 마리칸(Salleh Marican) 부동산업체 CEO가 입후보 신청을 했으나, 자기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거위원회로부터 후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다(Siau 2017). 결국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신청한 5명의 지원자 중 할리마 전 국회의장만이 후보 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개헌의 목적이 여당 선호 후보자의 당선을 위협할 변수를 최소화하는데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장기집권을 이어온 PAP에게 선거에서의 압승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집권당의 정치적 정당성 재창출과 더불어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PAP는 여당의 압승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꿔왔으며(Tan 2013),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대선에서 여당 후보 토니 탄 전 대통령(35.2% 득표)이 2위 탄첵복 후보(34.85%)를 가까스로 이긴 경험은 여당 지도층에게 차기 대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야기시켰다. 결국 PAP는 소수 인종 할당제 도입과 후보 자격 조건 강화를 통해 불확실한 변수를 제거하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을 둘러싼 논란은 할리마 대통령과 집권당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할리마 대통령의 공직 경력과 대중적 신임을 고려할 때 할리마 야콥은 선거제 개편이라는 변칙 없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었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PAP의 성급한 결정은 무투표 당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녀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 9월 11일 할리마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많은 싱가포르인들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나의대통령은아니다(notmypresident)”라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으며(Teoh 2017), 그 주 일요일 홍림 공원에서는 “9.11은 민주주의가 죽은 날”, “임명된 대통령”이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무투표 당선에 항의하는 침묵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Asyiqin 2017). 의원내각제인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상징적인 측면이 크나 고위직 임명 및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당 선호 후보를 당선시킬 의도가 엿보인 선거제 개편은 그나마 제한적 범위 안에서 내각 견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할리마 야콥 또한 ‘임명직’ 대통령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다인종주의’와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PAP의 모순적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모든 인종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인종과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사회적 성공이 보장된다는 ‘능력주의’를 줄곧 강조해왔다(Moore 2010). 따라서 말레이계에게만 대통령직에 입후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우대 조치이자 싱가포르의 국가 이념인 능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한 싱가포르 평론가는 “여당의 정치적 목표 때문에 싱가포르의 핵심 가치인 능력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평하였으며(Han 2017),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온라인 포털(Youth.SG)에서는 6년에 한 번 주어지는 소중한 투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성토가 제기되었다.²⁾

2) <https://www.youth.sg/Our-Voice/Opinions/2017/9/Robbed-of-our-right-to-elect-our-president> (검색일 : 2017.12.30)

매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제한된 정치적 경쟁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기회로 여겨져 왔다.³⁾ 실제로 역대 치러진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들은 비(非)여당 후보에게 상당수의 표를 던졌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할리마 야콥의 무투표 당선은 대통령 선거를 중요한 정치 참여의 기회로 여기던 싱가포르인들을 좌절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가중시키고 야당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Rodan 2017). 집권당의 무리수가 자충수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불만이 차기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나, PAP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6월 리셴룽 총리의 형제들로부터 제기된 리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도 집권당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었다. 리관유가(家)의 ‘형제의 난’으로 불린 이 사건은 리관유 전 총리의 자택 처리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6월 14일 리 총리의 동생 리웨이링(Lee Wei Ling)과 리셴양(Lee Hsien Yang)은 자신들의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리 총리와 그의 부인 호칭(Ho Ching)여사가 사후 자택을 허물라는 리관유 전 총리의 유언을 어기고 리관유의 자택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산으로 삼아 아들 이홍이(Lee Hongyi)에게 권력을 넘겨주려 한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리셴룽 총리가 자신의 지위와 싱

3) 싱가포르의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는 집단대표선거구(GRC: Group Representation Consistency)와 1인 선출의 단독선거구(SC: Single-seat Constituency)로 구분된다. GRC는 정당별 투표로 이루어지며 최다 득표 정당이 해당 GRC의 전체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GRC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정당에서 1개 GRC 선출위원수(3~6)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인재풀이 빈약한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4) 1993년 대선에서는 비여당 후보였던 추아킵여(Chua Kim Yeow)가 41.31%의 표를 얻었으며, 2011년 대선에서는 탄젠복 후보와 탄지세이(Tan Jee Say) 후보가 각각 34.85%, 25.04%의 표를 획득한 바 있다. 1999년, 2005년 선거에서는 나단(Nathan) 전 대통령이 단독 입후보해 대통령직에 올랐다.

가포르 정부 및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남용해 자신의 개인적 의제를 추구하는 데 위협을 느꼈다”며,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Lee and Lee 2017).⁵⁾ 리셴룽 총리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형제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그들의 성명이야말로 리관유 전 총리의 유산을 훼손했다고 반박했지만(Sim 2017), 국부 리관유 일가의 집안 싸움은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리 총리는 대국민 사과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적 신임을 회복하려 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7월 6일 리웨이링과 리셴량이가 더 이상 공개적인 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리 총리가 상기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는다는데 동의를 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상기 논란이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친형제들로부터 제기된 리 총리의 권력 남용 의혹은 집권당에 대한 국민 지지의 근간인 정부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7월 15일 홍림 공원에서 리 총리의 형제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대중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400여명이 모인 동 집회에서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국민들의 것이지 리(Lee) 일가의 것이 아니다”라는 배너가 달리기도 하였으며, 집회 연설자는 이번에 제기된 권력 남용 의혹이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공유하는 리 총리의 가족에게 나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Ungku 2017).⁶⁾ 형제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리 총리의 입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리 총리를 위시한 PAP 지도층은 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명예훼손 고소로

5) 또한 이들은 호칭 여사가 정부 내 공식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6) 집회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락된 싱가포르에서 대중 집회에 400여명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강력 대응해왔다. 따라서 리 총리가 형제들의 의혹 제기를 그냥 넘어간 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강조해온 철저한 법치(rule of law) 원칙에 모순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지도층의 정직성과 법치를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으로 강조해온 리셴룽 총리에게는 뼈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하철(MRT)의 잦은 고장도 집권당에게 매우 골치 아픈 문제였다. 지하철 고장은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2017년에는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유난히 잦았다. 일례로 11월 7일 지하철 터널에 물이 차 이용객이 제일 많은 남북(North-South) 노선이 20시간 동안 운영되지 않았으며(CNA 2017b), 11월 15일에는 이례적인 열차 충돌로 29명이 부상을 당했다(CNA 2017c). 정치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사회계약은 서구만큼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대신 정부가 그에 합당한 정치적 안정성과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 있음을 지적하며, 잦은 지하철 고장은 정부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토록 함으로써 집권당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Seow 2017a).

집권당 승계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정부 리더십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였다. 리셴룽 총리는 2004년 총리직에 오르기 전 14년 간 부총리직을 수행하였으며, 2대 총리였던 고촉통(Goh Chok Tong) 명예선임장관도 1990년 총리직을 맡기 전 5년 동안 부총리직에 있었다. 새 총리가 선임되기 최소 5년 전에 후계구도가 결정이 되었고, 차기 총리는 국정 운영에 대해 숙지할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총리직에 올랐다는 뜻이다. 그러나 리셴룽 총리가 2020년 은퇴를 예고한 현 시점에서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유망 총리 후보로 꼽혔던 탄추안진(Tan Chuan-jin)이 국회의장 자리로 가게 되면서 현재 세 명의 후보가 차기 지도자로 유력시되고 있다. 헝스위킷(Heng Swee Keat) 재무부 장관, 찬츄싱(Chan Chun Sing) 총리실 장

관, 옹예쿵(Ong Ye Kung) 교육부 장관이 그들이다(Seow 2017a). 싱가포르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명성을 얻는 데에는 견고한 정치적 안정성이 뒷받침되었던 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도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다. 리 총리의 은퇴 시점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곧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기 세 후보 중 누가 부총리직을 맡느냐에 따라 차기 권력 승계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Ⅲ. 경제: CFE 보고서 발표와 증세 부담 증가

2017년 싱가포르 경제는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및 정밀 기계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5%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은 전년 대비 -8.1%의 성장률을 보였다. 건설업의 위축은 외국인 노동인력 제한에 따른 민간 부분 건설 활동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도소매 유통, 교통 및 물류산업이 호재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2.5%의 성장률을 이룩하였다. 싱가포르가 2017년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웃돈 성장을 거둔 요인에는 세계 경제 호전도 있었지만, 국내 생산성 증가가 주효했다는 것이 정부측 평가이다. 2017년 싱가포르는 3~3.5%의 생산성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그동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생산성 증가율이 0.2~1%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2017년 생산성 증가는 향후 싱가포르 경제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리셴룽 총리도 2018년 신년 연설에서 기업 혁신과 국민들의 꾸준한 직무 숙련도 향상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Chia 2017).

<표 1> 싱가포르 전년 동기 대비 산업별 GDP 성장률(2016~2017)
(*: 예상치)7)

	2016/ 4분기	2016	2017/ 1분기	2017/ 2분기	2017/ 3분기	2017/ 4분기*	2017년 *
전체 GDP	2.9	2.0	2.5	3.0	5.4	3.1	3.5
제조업	11.5	3.6	2.5	3.0	19.2	6.2	10.5
건설업	-2.8	0.2	-7.0	-9.1	-7.7	-8.5	-8.1
서비스업	1.0	1.0	1.4	2.6	3.2	3.0	2.5

(출처: 통상산업부(MTI) 홈페이지)

싱가포르는 세계 경제의 경쟁 심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저성장 극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양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17년 발표된 미래경제위원회(CFE: Committee on Future Economy) 보고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그동안 세계 경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성장 부진, 반(反) 세계화 움직임, 세계 정치의 불안정성 등은 싱가포르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4차 산업시대 전환에 따른 기술 변화 대비, 적극적인 해외 진출 도모, 미래 산업 인력 양성 등도 주요 도전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2016년 미래경제위원회(CFE)를 설립해 현재 싱가포르가 직면한 문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토록 권고하였으며, CFE는 2017년 2월 향후 10년간의 경제발전 비전, 전략 및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CFE가 제시한 싱가포르의 미래 비전은 ‘고도의 기술과 평생 학습을 추구하는 국민’, ‘혁신적인 기업’,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7) https://www.mti.gov.sg/NewsRoom/SiteAssets/Pages/Singapore%E2%80%99s-GDP-Grew-by-3.1-Per-Cent-in-the-Fourth-Quarter-of-2017/AdvEst_4Q17.pdf (검색일: 2017.1.2.)

시티’, ‘협력적이고 포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부’로 압축될 수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아시아에 초점을 둔 합작투자자와 지역개발사업 협력 강화가 강조되었으며, 국제 연계성 심화를 위해 주요 혁신 허브에 있는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는 글로벌 혁신 연대(Global Innovation Alliance) 네트워크 구축이 권고되었다. 또한 자국민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국내 기업의 혁신 및 디지털 능력 제고, 도시의 연계성 강화, 산업구조개혁(Industry Transformation Maps: ITMs) 촉진, 경제주체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들이 제시되었다(CFE 2017). 정부는 상기 발전 계획이 향후 10년간 2~3%의 경제성장률의 달성과 자국민의 경력 발전 및 임금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의 특징은 CFE 보고서의 전략 실행, 세계 변경, 복지 확대, 경기 부양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강화, 기업의 기술개발,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글로벌 혁신 연대 구축, 개인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었다. 한편,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탄소세, 수도세, 유류세 등의 세제 변경안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탄소배출 규제를 위해 2019년 탄소세를 도입하고, 물 소비 축소를 위해 201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최대 30%까지 수도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HDB)을 처음 구입하는 가계에 한해 중앙적립기금(CPF)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을 증액하였으며, 18개월 이하 어린이집 시설을 2배로 늘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인당 교육비 보조금도 확대하였다. 장애인 교육·취업을 지원하고 치매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금도 증액되었다. 한편, 수도세 인상에 따른 부담 보전을 위해 소비세(GST) 환급 대상 공공주택 거주자에 한해 공과금에 대한 소비세 환급액을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비세 환급 대상 저소득층 가계에 대해 일회성 특별 환급액(SGD 200 한도)을 추가하고, 개인소득세의 20%를 환급(SGD 500 한도) 해주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2017년 예산안은 건설업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노년층 근로자 고용에 대한 임금 보조 확대,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등의 경기 부양책을 포함하고 있다(Yahya 2017).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은 SGD 694.5억으로 전년대비 1.1%, 세출은 SGD 750.8억으로 5.2%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재정수지는 SGD 56.2억 적자로 전년도(SGD 27.2억 적자)에 비해 적자 규모가 약 2배 확대되었다.⁸⁾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족 구성원의 수입을 바탕으로 기초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구조이나, 저출산, 고령화,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자 2000년대 들어와 복지 예산을 늘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늘어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는 싱가포르 정부의 최대 고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월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헝스위킷 장관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리셴룽 총리는 11월 PAP 연례회의에서 미래 경제에 대한 투자와 사회 복지 비용의 증가로 “증세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Seow 2017b). 아직 구체적인 증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현 7%의 소비세(GST)가 8~10%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였다. 증세 시점은 차기 총선 후인 2021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수도 세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 증가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의 복지 지출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으며, 중산층은 PAP의 지지층 확보에 가장

8) 싱가포르 정부 발표 자료 참조 http://www.singaporebudget.gov.sg/data/budget_2017/download/FY2017_Analysis_of_Revenue_and_Expenditure.pdf (검색일: 2018.1.14).

중요한 그룹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 예산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부의 불평 등 문제로 2018년 최대 정치적 화두는 생계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바, 증세 문제는 PAP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Seow 2017a).

IV. 국제 관계 : 균형 외교의 딜레마

2017년 7월 싱가포르 외교가는 ‘소국(小國)’ 논쟁에 휘말렸다. 논쟁의 발단은 키쇼어 마부바니(Kishore Mahbubani) 전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의 Straits Times 기고문이었다. 마부바니 전 학장은 7월 1일 ‘카타르를 통해 배운 큰 교훈’ 제하의 기고에서 리콴유와 같은 국가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소국답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가 남중국해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대한 입장 표명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Mahbubani 2017). 싱가포르는 그동안 미-중간 경쟁에서 어느 한 쪽에 편중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펼치는 한편 국제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옹호해왔다. 따라서 마부바니 학장의 논평은 싱가포르의 기존 외교 정책 기조에 반하는 주장으로 읽히며 동료 외교관들의 반발을 샀다.

빌라하리 카우시칸(Bilahari Kausikan) 외교부 본부 대사는 “싱가포르의 생존과 번영은 강대국의 애완견(tame poodle)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하며, 리콴유의 부재로 싱가포르의 외교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마부바니의 제안은 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산무감(Shanmugam) 내무부·법무부 장관(전 외교부장관)도 마부바니 학장의 주장은 국부 리콴유

가 제시한 기본 원칙에 반하며, 현 정세에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으나 다른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옹켝용(Ong Keng Yong) 본부 대사도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더욱 큰 압박만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Asyiqin and Chew 2017).

미국과 중국 어느 한 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싱가포르의 외교 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강화되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전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기존의 균형 외교를 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J.I. Chong 2017). 마부바니 학장의 기고문으로 촉발된 전현직 외교관들의 설전은 싱가포르가 이러한 불확실한 정세에 맞서 외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압박에 놓였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2016년부터 중국은 싱가포르의 외교 정책에 불만을 표하며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왔다. 2016년 9월 환구시보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비동맹 정상회의 폐막 성명 채택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남중국해에 대한 PCA 판정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싱가포르가 미국과 필리핀 편에 서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스탠리 로(Stanley Loh) 주중국 싱가포르대사가 환구시보의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환구시보 편집장과 로 대사의 공개적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Zhou 2017). 2016년 11월 말에는 중국이 대만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홍콩을 거쳐 본국으로 복귀하려던 싱가포르 장갑차 9대를 압수했다. 2017년 1월 응옹헨(Ng Eng Hen) 국방장관이 압류된 장갑차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싱가포르 자산이라고 중국을 비판하자, 같은 날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싱가포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장갑차 압수는 홍콩 정부의 법에 따른 것이라

반박했다. 싱가포르군의 대만 훈련을 수년간 묵인해왔던 중국이 이제와 제재를 가한 것은 중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양안 관계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가 중국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Jaipragas and Wong 2017). 싱가포르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최대 지지국임에도 불구하고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리셴룽 총리가 초청받지 못한 것도 중-싱 양국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방증이었다(The Independent 2017).

이러한 상황에서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은 2017년 싱가포르가 거둔 가장 큰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다. 2013년 방중 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만 만났던 리셴룽 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과 위정성(俞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면담하였다. 이러한 고위급 환대는 중국측이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19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 중국이 리셴룽 총리를 초청해 환대를 베푼 것은 그동안 꺾여왔던 중-싱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Wang 2017). 이는 싱가포르가 2018년 아세안 의장국임을 고려해 중국이 싱가포르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 싱가포르를 상대로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도 이 기회를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리셴룽 총리의 방중 직후인 10월 리 총리를 초청하였다. 싱가포르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가장 옹호했던 국가로서 미국과 경제·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및 경제 정책 등이 싱가포르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

을 지속해나가리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들은 경제협력 확대뿐 아니라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싱가포르는 미 해·공군의 대아시아 군사 작전 및 훈련을 위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왔으며, 미국의 대테러 및 해양 안보 활동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리셴룽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대 IS 연합 작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2018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약속하였으며(CNA 2017d),⁹⁾ 지난 9월에는 양국 해군이 괌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양국이 싱가포르 영해 밖에서 해군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Parameswaran 2017). 그러나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고, 미국 또한 의장국 싱가포르를 통해 아세안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둔 싱가포르의 균형 외교가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리셴룽 총리가 트럼프와의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중국과 미국이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이다.

미·중과의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싱가포르가 직면한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싱가포르로서는 미·중 경쟁 구도 사이에서 아세안이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이끌고 싶겠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아세안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싱가포르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은 싱가포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 고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맞서 리셴룽 총리는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2018년 아세

9) 싱가포르는 대 IS 연합 작전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군사장비와 인력(비전투)을 모두 지원해왔다.

안은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촉진하는 한편 남중국해에 대한 행동규칙(code of conduct)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Yong 2017). 남중국해 행동규칙 타결이 싱가포르의 의장국 임기 내에 성사되기는 어렵겠지만, 남중국해 평화는 싱가포르 국익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싱가포르가 행동규칙 협상 진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아세안 차원에서의 강한 대북 제재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의 대북 고립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도 11월 대북 교역 중단을 선언하며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Chang 2017), 아세안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셴룽 총리는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압박은 필요하지만 대화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SCMP 2017), 싱가포르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리셴룽 총리의 발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시사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싱가포르 주도 하에 아세안이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겠지만, 남중국해 문제와 경제 통합 등 역내 내부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북핵 문제를 아세안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2017년 한국과 싱가포르는 여느 때와 같이 우호적 관계를 다졌다. 3월 정세균 국회의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 총리와 할리마 대통령을 면담하고 양국간 교역 강화와 한국 기업의 싱-말 고속철 사업 수주 협조를 요청하였다(김승욱 2017).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를 연결하는 싱-말 고속철 건설 사업(2020년 완공 목표) 수주는 그동안 한국이 양국 외교에 있어 가장 공을 들여온 사안 중 하나이

다. 2018년 사업자 선정이 예상되어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고속철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어 수주 경쟁은 한·중·일 3파전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의 친중국 성향으로 중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고속철 수주에 적극적 공세를 펼친 우리 외교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월에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조미현 2017). 특히, 싱가포르와 한국이 국가 핵심 사업으로 각각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과 스마트 시티(Smart City)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관계 외에도, 싱가포르는 우리의 향후 대아세안 정책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대아세안 외교 강화 의지를 담은 ‘신남방정책’을 선언한 바 있으며,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은 싱가포르이다. 우리가 한-아세안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첫째 의장국이 싱가포르이니만큼, 2018년 한-싱 협력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V. 사회 문화: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움직임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싱가포르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대통령 선거였으며, 이것은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논의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이라는 이중 약자(double minority)를 대표하는 존재로

서 싱가포르가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감을 상징하기도 한다 (Jaipragas 2017b).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갈등의 존재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선 말레이계로 그 자격이 제한되어 단독 출마한 할리마 대통령의 선출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의 정체성 문제를 더욱 활발히 논의하게끔 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싱가포르 사회 내의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주의에 대한 신념, 성평등 의식에의 고취 등은 나아가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리관유의 사후 더욱 두드러진 싱가포르 사회 전반의 분위기 변화와 여러 가지 정책 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리관유 전 총리의 서거 당시 그를 ‘독재자’로 비판하고 특정 종교를 모독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2016년 체포되었던 싱가포르의 10대 블로거 아모스 이(Amos Yee)는 미국으로 도미하여 망명을 신청하였고, 2017년 미국 정부는 아모스 이에 대한 싱가포르의 정치적 박해를 인정하면서 망명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싱가포르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국가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사게 되었다(Chappell 2017). 또한 2016년 개최된 브라질 리우(Rio)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조셉 스쿨링(Joseph Schooling)과 같은 해 패럴림픽(Paralympic)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립핀 슈(Lip Pin Xiu)가 국가 포상금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싱가포르 장애인 협회의 회장인 치아용용(Chia Yong Yong)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의 포상금의 차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 없고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Chua 2016). 2016년 단행된 교육 정책의 변화 중 어린 학생들과 청

소년들의 다양한 적성과 재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시험제도 역시 사회의 다양성과 공정성에 대한 싱가포르인들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Tan and Boey 2017). 이처럼 싱가포르 사회가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2017년에도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사회적 이슈였으며, 따라서 이 절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더욱 활발히 논의되었던 말레이 정체성의 문제, 성평등과 다양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싱가포르 내의 인종/민족 정체성의 문제이다. 2017년 싱가포르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는 “누가 말레이인가”에 대한 정체성 논쟁이었다. 차기 대통령을 말레이계로 제한한 개정된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순수 말레이 또는 플라유 아슬리(Melayu Asli)는 단순한 인종의 범주가 아닌 문화적인 범주로 구분된다. 즉 말레이 정체성 구성에는 자기 자신을 말레이라고 간주하며, 말레이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문화적인 정의가 중요하다. 민간분야의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려 했던 파리드 칸과 살레 마리칸의 경우, 각각 파키스탄, 또는 인도계 무슬림의 혈통을 지녔으며, 할리마 대통령의 부친도 인도계 무슬림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순수한’ 말레이라는 범주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이데올로기적인 범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레이계라는 인종 또는 민족 범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문화적 구성물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 정체성은 각 후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지, 말레이 공동체의 성원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말레이어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내세우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Saat 2017). 일례로 살레 마리칸의 경우 페이스북 인터뷰를 통해 부족한 말레이어 실력이 드러나자 여러 사람

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Jaipragas 2017a).

한편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인종에 대한 고려는 싱가포르의 독립 후 유지되어온, 소위 CMIO 모델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그리고 기타: Chinese, Malays, Indians and Others)의 영속 및 강화를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강력한 이중 언어 정책에 따른 모어(mother tongue) 교육, 공공주택의 배분, 집단대표선거구제(GRC) 등을 통하여 각 인종/민족 집단의 경계를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Clammer 1982)시켜왔으며, 인종-언어-문화의 범주를 연결시킴으로써 오히려 싱가포르 내 인종적, 민족적 구분을 극대화하고 영속화하게 되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말레이계로 지정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싱가포르에서 나타나는 인종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며, 소수인종/민족 집단의 국가 통합이라는 상징적인 효과를 의도했으나, 오히려 싱가포르 내의 인종/민족 집단 간의 차이와 경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Rodan 2017).

2017년 할리마 대통령의 선출로 제기된 두 번째 사회적 이슈는 양성평등의 문제이다. 싱가포르의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할리마 대통령은 싱가포르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의 정부 기관이나 공공 영역에의 진출, 특히 고위직으로의 진입 장애와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성별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 기관 직원의 56.2 퍼센트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 최고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ies)급에서는 여성은 단지 27퍼센트에 그쳤다(Chua 2017). 또한 싱가포르 기업 내 임원의 9.7 퍼센트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아시아의 평균인 8.9 퍼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의 직장 내에서 여성이 임원직을 맡는 확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Roeder 2017).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에 있어서도 2006년 이후 남성 근로자

가 여성보다 평균 20퍼센트, 기업에 따라서는 40퍼센트 이상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Williams 2017). 마찬가지로 2017년 글로벌 젠더 격차 리포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젠더평등성 점수에서 144국가 중 65위를 차지하며(World Economic Forum 2017), 이 순위는 2016년에 비해 10위 정도 내려간 성적이다 (N.Q. Chong 2017).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여성 운동 조직인 AWARE (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and Research)는 나아가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싱가포르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에서 10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싱가포르 최초 여성 대통령의 선출은 싱가포르 내 여성의 향상된 지위를 반영하는 듯하나, 싱가포르 여성들에게 여전히 ‘유리 천장’은 존재하며, 정부 요직이나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은 요원하다. 특히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을 보면, 공직에 3년 이상 재임해야 하는데, 공직에 진출한 여성은 여전히 극소수를 차지하며, 이것은 미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아갈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AWARE 2017). 따라서 싱가포르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더욱 더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여성 대통령의 선출은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서 양성 평등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AWARE 는 2017년 각종 캠페인과 사회운동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여성 및 소수 집단의 다양성과 평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특히 한부모 가정, 성소수자들, 외국인 여성 이주민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교육과 실천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한편 싱가포르 사회 내의 다양성과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기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될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졸업 시험 (PSLE: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에 대한 개정 방향이 2016년 발표되면서, 그동안 입시와 경쟁 위주의 싱가포르 교육이 좀 더 배움과 학습

자체를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발표한 PSLE 시험의 주된 변화는 기존의 상대 평가 시스템을 8개의 성취도 등급 (Achievement Levels)에 의한 절대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것은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더욱 더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Davie 2016).

싱가포르 교육 제도가 미래 사회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는 2017년 6월 비비안 바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담당 겸 외교부 장관이 제6차 싱가포르 국제과학챌린지(Singapore International Science Challenge) 개막 연설에서 발표한 교육변화 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에 반영되어 있다. 바라크리쉬난 장관에 따르면,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재료 공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에 의해 주도 될 것이므로, 학생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직업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서 싱가포르에서 추구하는 미래의 인재는 A, B, C 라는 약자로 표현되는, 1) A: 미적 감각(sense of aesthetic), 2) B: 구축 능력 (ability to build), 3) C: 의사소통 능력(mastery of communication)을 갖춘 사람이며, 이것은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반영한다. 나아가 이러한 미래 인재의 양성은 현재의 공적인 교육 체계를 뛰어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평생교육을 강조하였다(Lim 2017).

평생교육과 기술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의 강조는 싱가포르의 부총리 타르만 산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의 2015년 예산 연설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의 연설에 따르면 그동안 싱가포르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높은 교육 성취도를 이루어 냈지만, 학교 교육을 뛰어넘은 평생교육은 정부가 추구해야 할 인력 개발의 다음 단계

를 이룬다(Shanmugaratnam 2015). 특히 직업역량개발 프로그램인 ‘SkillsFuture’ 운동은 현재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진행 중이다. 여기서 싱가포르 SkillsFuture 운동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자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국민들이 평생 동안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고, 나아가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Tan 2017). 이것은 싱가포르 교육이 기존의 획일적인 학문적 성과 중심의 교육체계에서 기술 개발과 인적 자본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고가 가능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가 4차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경제적 사회적 전환기에 있음을 드러낸다.

VI. 결론 및 전망

2017년은 싱가포르 지도층에게 험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가장 큰 외교적 난제를 해결했지만,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는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앞서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이 PAP의 1당 지배체제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무투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감과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부 견제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선거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닌 압승을 도모해왔던 PAP로서는 올해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각 개편을 통해 후계 구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집권당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외교적으로 싱가포르의 아세안 의장국 수행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회유/압박하겠지만, 싱가포르가 균형 외교를 현명히 잘 펼친다면 미·중간 이해조정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11월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남중국해 행동규칙 등의 역내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약속하였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역내 경제통합은 싱가포르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싱가포르는 아세안 의장국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은 미지수이나, 적어도 경제통합 과제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의 리더십 하에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하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것에 대한 반발에서 나타났듯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의 인정은 비판되며, 더욱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초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었어도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유리 천장이 존재하는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 불평등은 곧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아가는 우려가 커졌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의 공공 주택 정책이나 여성 정책이 가족의 ‘정상성’이나 고착된 성별 관계를 생산하였다는 데 반발하여, 한부모 가족에게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만들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돌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각종 교육 정책에서도 기존

의 학업 위주의 능력 함양을 최우선으로 하던 정책에서 점차로 기술과 직무 능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사회에 걸맞은 미래의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사회적 소외 집단에 대한 관심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민주적인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 의식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성 속의 화합과 평화라는 명목 하에 싱가포르 내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의 피력을 여전히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 사회의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별첨 1> 싱가포르 역대 대통령¹⁰⁾

취임	성명	재임 기간	인종	선출 방식
초대	유솅 빈 이삭 (YUSOF bin Ishak)	1965.8.9. ~ 1970.11.23	말레이계	간선
2대	벤저민 시어스 (Benjamin Henry SHEARES)	1971.1.2. ~ 1981.5.12	유라시아계	
3대	드반 나이크 (C. V. Devan NAIR)	1981.10.24. ~ 1985.3.28	인도계	
4대	위킴위 (WEE Kim Wee)	1985.9.2. ~ 1993.9.1	중국계	
5대	옹텅청 (ONG Teng Cheong)	1993.9.1. ~ 1999.8.31	중국계	직선
6대	나단 (Sellapan Rama NATHAN)	1999.9.1. ~ 2005.8.31	인도계	
재선	나단 (Sellapan Rama NATHAN)	2005.9.1. ~ 2011.8.31		
7대	토니 탄 켝얌 (Tony TAN Keng Yam)	2011.9.1. ~ 2017.8.31	중국계	
8대	할리마 야콥 (HALIMAH Yacob)	2017.9.14.~ 현재	말레이계	

10) Singapore Infopedia (http://eresources.nlb.gov.sg/infopedia/articles/SIP_808_2004-12-28.html)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가 정리함 (검색일: 2018.1.5.)

〈참고문헌〉

- 김승욱. 2017. “정세균 의장, 싱가포르 국회의장 면담... 고속철 수주 협조 요청.” 『연합뉴스』 3월 2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21706> (검색일: 2018.2.19.)
- 조미현. 2017. “문재인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4차 산업혁명 · IT · 중소기업이 ‘화두’.” 『한국경제』 11월 14일.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11149209i&category=AA020> (검색일: 2018.2.19.)
- Asyiqin, Nur. 2017. “Hundreds take part in silent protest against reserved election at Hong Lim Park.” *The Straits Times* September 16. <http://www.straitstimes.com/politics/hundreds-take-part-in-silent-protest-against-reserved-election-at-hong-lim-park> (검색일: 2017.12.22.)
- Asyiqin, Nur. and Chew Hui Min. 2017. “Minister Shanmugam, diplomats Bilahari and Ong Keng Yong say Prof Mahbubani's view on Singapore's foreign policy ‘flawed’.” *The Straits Times* July 2.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prof-kishore-mahbubanis-view-on-singapores-foreign-policy-deeply-flawed-ambassador-at> (검색일: 2017.12.05.)
- AWARE. 2017. “Singapore fares worse in closing gender gap.” *AWARE*. November 10. <http://www.aware.org.sg/2017/11/singapore-fares-worse-in-closing-gender-gap/> (검색일: 2018.1.10.)
- CFE. 2017.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Executive Summary.” https://www.gov.sg/~media/cfe/downloads/mtis_executive%2

Osummary.pdf (검색일: 2017.12.30.)

- Chang, May Choon. 2017. "Singapore suspends trad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Straits Times* November 16. <http://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singapore-suspends-trade-relations-with-north-korea> (검색일: 2018.1.12.)
- Chappell, Bill. 2017. "U.S. grants asylum to Amos Yee, young blogger from Singapore," *The Two-Way: Breaking News from NPR* September 27. <https://www.npr.org/sections/thetwo-way/2017/09/27/553976738/u-s-grants-asylum-to-amos-yee-young-blogger-from-singapore> (검색일: 2018.1.12)
- Chia, Yan Min. 2017. "Singapore economy grows 3.5% in 2017, more than double initial forecasts: PM Lee." *The Business Times* December 31. <http://www.businesstimes.com.sg/government-economy/singapore-economy-grows-35-in-2017-more-than-double-initial-forecasts-pm-lee>(검색일: 2017.1.2.)
- Chong, Zi Liang. 2017. "Debate on timing of reserved election." *The Straits Times* February 7. <http://www.straitstimes.com/politics/debate-on-timing-of-reserved-election> (검색일: 2017.12.15.)
- Chong, Ja Ian. 2017. "Singapore's foreign policy at a juncture." *East Asia Forum*. November 8. <http://www.eastasiaforum.org/2017/11/08/singapores-foreign-policy-at-a-juncture/> (검색일: 2017.12.22.)
- Chong, Ning Qian. 2017. "Clear need to address gender gap at work and politics." *The Straits Times* November 9. <http://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on-the-web/clear-need-to-address-gender-gap-at-work-and-in-politics> (검색일 2018.1.8.)

- Chua, Mui Hoong. 2017. "When will Singapore have a female head of civil service?" *The Straits Times* July 23.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when-will-spore-have-a-female-head-of-civil-service> (검색일: 2018.1.5.)
- Chua, Sian Yee. 2016. "Para-athletes get standing ovation from the House." *The Straits Times* November, 8.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para-athletes-get-standing-ovation-from-the-house> (검색일: 2018.1.5.)
- Clammer, John R. 1982.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ity: the Culture of Ethnicity in Singapore," *Ethnic and Racial Studies* 5 (2): 127-139.
- CNA(Channel News Asia). 2017a. "Next Presidential Election to be reserved for Malay candidates: PM Lee." November 8. 8.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next-presidential-election-to-be-reserved-for-malay-candidates-p-771992> 8 (검색일: 2017.12.15.)
- _____. 2017b. "MRT tunnel flooding: A timeline of events." November 7.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mrt-tunnel-flooding-a-timeline-of-events-9383704> (검색일: 2018.1.5.)
- _____. 2017c. "Joo Koon train incident was second collision in MRT history." November 15.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joo-koon-train-mrt-collision-smrt-history-9408270> (검색일: 2018.1.5.)
- _____. 2017d.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M Lee in joint statements." October 24.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remarks-by>

an-Yews-Values.pdf (검색일: 2017.12.26.)

- Lim, Sean. 2017. "Children must be ready for jobs 'that do not yet exist'." *The Straits Times* June 28.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education/children-must-be-ready-for-jobs-that-do-not-yet-exist> (검색일: 2018. 1. 11)
- Mahbubani, Kishore. 2017. "Qatar: Big lessons from a small country." *The Straits Times* July 1. <http://www.straitstimes.com/opinion/qatar-big-lessons-from-a-small-country?login=true> (검색일: 2017.12.5.)
- Moore, R. Quinn. 2010. "Multiracialism and Meritocracy: Singapore's Approach to Race and Inequality." *Review of Social Economy* 58(3): 339-360.
- Parameswaran, Prashanth. 2017. "What's in the New US-Singapore Maritime Exercise in Guam?" *The Diplomat* September 6. <https://thediplomat.com/2017/09/whats-in-the-new-us-singapore-maritime-exercise-in-guam/> (검색일: 2018.1.5.)
- Rodan, G. 2017. "Singapore's elected president: a failed institution."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5.
- Roeder, Lynne. 2017. "Commentary: Time to shatter the gender glass ceiling." *Channel News Asia* December 29.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commentary/commentary-time-to-shatter-the-gender-glass-ceiling-9443798> (검색일: 2018.1.10.)
- Saat, Norshahril. 2017. "History of S'pore Malays shows what community seeks in president." *The Straits Times* July 20. <http://www.straitstimes.com/opinion/history-of-spore-malays-shows-what-community-seeks-in-president> (검색일: 2018. 1.5.)

- Seow, Joanna. 2017a. "Five political hot potatoes of 2017." *The Straits Times* December 31. <http://www.straitstimes.com/politics/five-political-hot-potatoes-of-2017>
- _____. 2017b. "Taxes will go up as investment needs and social spending grow: PM Lee." *The Straits Times* November 19 <http://www.straitstimes.com/politics/taxes-will-go-up-as-investment-needs-and-social-spending-grow-pm-lee?login=true>
- Shanmugaratnam, Tharman. 2015. "Budget Speech 2015-Section C: Developing our people." February 25. <http://www.skillsfuture.sg/NewsAndUpdates/DetailPage/a956ee16-9073-485a-8fa1-4ef3f1fcd830> (검색일: 2018.1.12.)
- Siau, Ming En. 2017. "Halimah set to be named S'pore's next President." *Today Online* September 11. <http://www.todayonline.com/singapore/halimah-yacob-be-spor-es-1st-woman-president-sole-candidate-qualify-reserved-election> (검색일: 2017.12.22.)
- Sim, Royston. 2017. "PM Lee saddened by siblings' allegations." *The Straits Times* June 15. <http://www.straitstimes.com/politics/pm-lee-saddened-by-siblings-allegations> (검색일: 2017.12.15)
- Siong, Olivia. 2017. "Tan Cheng Bock's appeal over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dismissed." *Channel News Asia* August 23.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tan-cheng-bock-appeal-upcoming-presidential-election-dismissed-9149466> (검색일: 2017.12.22.)
- SCMP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 "Singapore's Lee suggests to Trump that while pressure on North Korea is needed, 'so

- is dialogue’.” October 24. <http://www.scmp.com/news/world/united-states-canada/article/2116662/singapores-lee-suggests-t-rump-while-pressure-north> (검색일: 2017.12.22.)
- Tan, Charlene. 2017. “Lifelong learning through the SkillsFuture movement in Singapore: challenge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6 (3): 278-291.
- Tan, Netina. 2013. “Manipulating electoral laws in Singapore.” *Electoral Studies* 32: 632-543.
- Tan, Kenneth Paul and Augustin Boey. 2017. “Singapore in 2016: Life after Lee Kuan Yew,” *Southeast Asian Affairs* 2017: 315-333.
- Teoh, Hannah. 2017. “Overwhelmingly negative sentiment after decision on Halimah Yacob's presidential eligibility: report.” *Yahoo News Singapore* September, 13 <https://sg.news.yahoo.com/overwhelmingly-negative-sentiment-decision-halimah-yacob-presidential-eligibility-report-070536453.html> (검색일: 2017.12.22.)
- The Independent. 2017. “PM Lee’s absence in B&R forum in Beijing - is China still throwing a tantrum?” May 17. <http://www.theindependent.sg/pm-lees-absence-in-br-forum-in-beijing-is-china-still-throwing-a-tantrum/> (검색일: 2017.12.22.)
- Ungku, Fathin, 2017. “Singapore protest calls for inquiry over PM's alleged abuse of power.” *Reuters* September 15. <https://www.reuters.com/article/us-singapore-politics-protests/singapore-protest-calls-for-inquiry-over-pms-alleged-abuse-of-power-idUSKBN1A00CO> (검색일: 2017.12.22.)
- Wang, Xiangwei. 2017. “China’s welcome for Singapore PM may

signal a new approach to smaller states.”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23.

<http://www.scmp.com/week-asia/opinion/article/2112468/china-as-welcome-singapore-pm-may-signal-new-approach-smaller-states> (검색일: 2017.12.22.)

Williams, Ahn. 2017. “No improvement in Singapore's gender pay gap since 2006: Report.” *The Straits Times* August 17. <http://www.straitstimes.com/business/economy/no-improvement-in-singapores-gender-pay-gap-since-2006-report> (검색일: 2018.1.8.)

World Economic Forum. 2017.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Singapore.”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7/dataexplorer/#economy=SGP> (검색일: 2018.1.10.)

Yahya, Yasmine. 2017. “Singapore Budget 2017: Heng Swee Keat reveals measures to thrive in an uncertain world and prepare for the future.” *The Straits Times* February, 20. <http://www.straitstimes.com/business/economy/singapore-budget-2017-heng-swee-keat-reveals-measures-to-thrive-in-an-uncertain> (검색일: 2018.1.2.)

Yong, Charissa. 2017. “PM Lee Hsien Loong outlines Singapore's key goals as Asean chair.” *The Straits Times* November 15. <http://www.straitstimes.com/asia/pm-outlines-singapores-key-goals-as-asean-chair> (검색일: 2017.12.22.)

Zhou, Viola. 2017. “Blow-by-blow account of the China-Singapore spat over Global Times' South China Sea report.”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28. www.scmp.com/news/

118 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23364/blow-blow-account-
china-singapore-spat-over-global (검색일: 2017.12.22.)

(2018. 1. 17. 투고, 2018. 1. 18. 심사, 2018. 2. 14. 게재확정)

< Abstract >

Singapore 2017: Challenges and Prospects in the Post-Lee Kuan Yew Era

KANG Yoon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Ina
(Sogang University)

For Singapore, 2017 was an uneasy year.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fraught with controversy since the revised Presidential Election Act allowed only one candidate to be eligible for the election. The bitter feud betwee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and his siblings shocked many Singaporeans. Succession planning for the next top leadership is still veiled in obscurity. The anti-globalization trend and the increasing pressure to raise the tax have become major challenges for Singapore's economy to overcome. China's continuous diplomatic pressure has called into the question Singapore's pragmatic foreign policy. Although its relations with China were back to normal, Singapore, the ASEAN chair in 2018, is still facing intractable problems in safeguarding ASEAN centrality in the growing US-China rivalry.

In the meantime, Singapore has pursued its diversity and equality,

heading toward a more matured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2017. The first female president, Halimah Yacob, served as a symbolic epitome of Singapore's emphasis on diversity and harmony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and minorities. This great milestone, however, has largely been questioned by Singaporeans, as it seemed to be a political gesture that only utilized Halimah's double minority in the level of ideologies. The election of the Malay president has led Singaporeans to think about the real equity and equality among minorities, while strongly motivated to move toward a more inclusive society. In 2018, Singaporean leaders will try to resolve many challenging problems by reaffirming leadership succession planning, which is expected to lead Singapore to pursue a more integrated society.

Key Words: Singapore, Lee Hsien Loong, PAP, Halimah Yacob,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diversity